

# 일본의 젠더비순응 실천과 정체성: 역사적 변화와 21세기의 트랜스젠더 정체성\*

조수미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부교수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젠더비순응(gender nonconformity) 실천과 정체성의 역사적 변화와 21세기에 새로 등장한 '성주체 성장애'와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실천을 비교분석한다. 전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젠더비순응적 실천과 재현은 예능, 유희이나 성매매라는 맥락에서 근대 이전과 일정한 연속성을 띠면서 나타난다. MtF(Male to Female)가 과다대표되며, 여성적 젠더표현은 남성동성애라는 섹슈얼리티와 혼동되었다. 이로 인해 젠더비순응자는 일상과 괴리되어 주류사회 바깥에 있는 존재라는 고정관념과 낙인을 형성하게 된다.

한편 1990년대 후반에 부상한 성주체성장애 담론은 섹슈얼리티와 분절된 비규범적 성별정체성을 강조한다. FtM(Female to Male) 작가, 스포츠선수, 드라마 캐릭터 등의 가시화로 일반 대중의 수용의 폭이 넓어졌다. 성별위화감을 치료를 요하는 '장애, 질환'으로 규정하는 관점은, 트랜스젠더가 일상 속의 존재로 조건부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당사자들이 의료적 트랜지션과 법적 성별정정 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잘못된 몸'으로서 여전히 트랜스젠더를 병리화하고 본질주의적 성별이분법을 재생산하는 또 다른 구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글로벌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트랜스젠더 비병리화 움직임에 발맞추어 부상한 2010년대 이후의 트랜스젠더는 성주체성장애 담론의 신체중심주의와 성별이분법에서 거리를 둔다. 'LGBT의 T', 즉 집합적인 성소수자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인권 운동이나 서브컬처에서 자신을 표현하며, 성별정정에 대한 법률 개선 요구, 가족구성권을 둘러싼 실험 등 트랜스젠더를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기를 요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제어 일본, 젠더비순응, 성주체성장애 (GID), 트랜스젠더

## I. 들어가며

일본은 고대로부터 남성-여성이라는 구분에 따라 성역할, 특권, 위신 등이 다르게 분배되고 다른 사회규범이 존재해 온 고도로 젠더화된 사회인 동시에, 이

\* 이 연구는 <다양성+ Asia> 웹진 18호에 실린 “근현대 일본 트랜스젠더의 여러 얼굴”(https://diverseasia.snu.ac.kr/?p=5912)을 발전시킨 것이다.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자료를 제공해 주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현 선생님과,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귀중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성에 바깥의 성적 지향이나 실천, 이분법적 성별범주를 넘나드는 정체성과 실천 또한 문학, 예술, 종교 등 다양한 기록을 통해 역사적으로 꾸준히 발견된다. 가부키나 다카라즈카 같은 공연예술부터 에도시대의 춘화, ‘풍속업’(성산업), 성인만화, 어덜트 비디오, 여장을 한 남성 연예인, BL(Boy's Love) 등 성과 관련된 표현이나 실천은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미디어 보도를 통해 쉽게 관찰되며, 해외의 대중문화, 하위문화에서도 적극적으로 표상되고 소비된다. 이 때문에 일본이 성의 표현과 실천이 자유분방한 문화라는 것은 널리 퍼진 고정관념이다.

종교적·법적으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죄악시 혹은 범죄화하고 차별하는 사회와 비교했을 때, 이런 특징은 시선에 따라서는 ‘변태적이고 문란한’ 것으로 폄하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매혹적이거나 대안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21세기 초까지 일본연구에서 성소수자들의 생활이 다른 사회에 비해 어렵지 않다(Lunsing, 2005)거나, 일본에는 성소수자 세력이 정치화하기 어렵고, 인권개념에 기반한 글로벌 퀴어운동의 확장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McLelland, 2000)는 진단이 있는데,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나 물리적인 폭력의 부재, 게이 하위문화 등의 문화적 출구의 존재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성애규범과 성별이분법 바깥의 존재들이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수용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소수파에 대해 굳이 공격은 하지 않지만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일관해 왔다. 말하자면 일종의 ‘무시’인 셈이다.” 라는 트랜스젠더 남성 스기야마 후미노(2007: 194)의 지적처럼, 주류 바깥의 실천이나 존재는 사회 질서에 도전하지 않는 ‘음지’에 존재할 때만 묵인되어 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적지향을 ‘라이프스타일’ ‘사생활’의 문제로 간주하며 탈정치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일상에서는 자신의 성적지향을 철저하게 감추는 오사카의 게이 남성에 대한 사례연구(조수미, 2016)도 표면적인 관대함 이면에 담긴 일본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압력을 방증한다.

19세기 후반의 근대화 이후 근현대 일본에서 비규범적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표현은 일본의 토착적 젠더크로싱 전통과, 19세기말 유럽의 성과학, 20세기 후반의 성소수자 운동 등 외부에서 수입된 담론과의 교섭 속에서 구성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21세기(정확하게는 1990년대 말)에서 현재에 걸쳐 나타난 ‘성주체성

장애<sup>1</sup>)와 ‘트랜스젠더’의 실천과 표상에 드러난 일본 사회의 비규범적 젠더 실천에 대한 당사자와 사회의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가 이 시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대화 이후 1990년대까지의 가시화된 비규범적 젠더 실천이 근대 이전과 일정정도 연속성을 띠고 있으며,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된 문화적 엔클레이브(enclave), 특히 유흥과 예능, 성산업에 머물러(혹은 갇혀) 있는 경우에만 (별시가 담긴) 목인을 받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면, 새로 등장한 성주체성장애/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당신 주변,’ 즉 일상 속의 젠더비순응자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들은 과거 ‘오카마,’ ‘오나베,’ ‘뉴 하프’ 등의 특정 직업군과 연결된 정체성과 거리를 두며 성별위화감 이외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함’을 강조한다. 또한, 자신들의 다름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불편함과 편견 어린 시선을 감내하기보다는 의료적 지원, 직장과 학교에서의 배려, 호직상(법적) 성별 정정 등 주류사회에 자신들의 존재를 수용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의료적·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가시화와 실천은 일본의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문화’ 때문에 일본의 성소수자들은 크게 억압받지 않는다거나, 일본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의 조직화는 어렵다는 과거 일본 성소수자에 대한 판단을 뒤엎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기 일본의 변화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처우를 둘러싼 글로벌한 움직임과 보다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1990년대 말 ‘성주체성장애’ 관념은 1990년대의 국제적인 트랜스젠더 병리화 움직임과,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2010년대의 트랜스젠더 비병리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성과 포용(D&I: Diversity and Inclusion)’ 움직임과, 2010년대부터 활발해진 각지의 프라이드 이벤트를 통해 대중화된 ‘LGBT’라는 명칭도 성소수자를 음지속의 존재로만 취급하는 과거와는 획을 긋는 ‘성소수자의 권리’라는 관점을 드러낸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접근성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sup>1</sup> 일본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성동일성장해(性同一性障害)’ 혹은 ‘GID(gender identity disorder)’이다.

한국의 일본연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체로 문학이나 영화, 만화 등에서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재현 분석(김정희, 2019; 김효진, 2020; 이지형, 2013; 김성운, 2022)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 정책에 대한 분석(니노미야, 2006; 마쓰시타, 2023; 이나경·최홍배, 2020; 유연정·정진영, 2023)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담은 학술적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볼 수 있다. 영어권 일본연구에서는 보다 풍부한 성소수자 기술이나 연구를 접할 수 있으나, 21세기 이후의 현장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일본어 연구는 연구 자체가 부족한 것인지, 한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일본 자료의 한계인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일본에서 현장연구 및 당사자의 심층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구자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주체성장애’ 담론이 부상하던 2000년대 전후에 가시화된 당사자들의 수기나 저서, 그리고 2010년대 말에서 20년대에 발행된 당사자들의 수기와 잡지 등의 1차 자료와,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일본 성소수자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글로벌한 성소수자 연구, 정책, 운동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다른 방식으로 정렬되는 현지인의 범주(vernacular categories) 간에 다소간의 괴리가 있거나, 같은 용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지인의 범주나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에 비해 일관성이나 엄밀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가 채택되고 사용되는 역사적·공간적 맥락을 드러내 보인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루인, 2012).

현재 학계나 사회운동, 국제기구에서 사용되는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은 출생 시의 신체를 기준으로 한 지정성별과 자신의 성별정체성이나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UN Free & Equal).<sup>2</sup> 이들은 겉으로 인지되는 외모나 행동을 바꾸거나(사회적 트랜지션), 수술 호르몬 요법 등의 의료적 변화(의료적 트랜지션), 법적인 성별 정정(법적인 트랜지션)

<sup>2</sup> 19세기 말 이후 서구와 국제사회의 트랜스젠더라는 범주 및 정체성에 대한 의료적 접근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는 박한희(2018) 참조.

등을 거침으로써 다양한 정도로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정체성과 자신의 신체, 혹은 사회가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성별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하지만 모든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신체와 반대인 이분법적 성별로 스스로를 인지하거나 모두가 완전한 사회적·의료적·법적 트랜지션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젠더비순응(gender nonconformity), 혹은 젠더변이(gender variance)란 각 사회에서 특정 성별에게 부여하는 젠더규범에서 벗어나는 표현이나 실천을 가리킨다.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sup>3</sup>처럼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이 지정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의 규범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드랙, 크로스드레싱처럼 당사자의 성별정체성과 별개로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그 사회의 젠더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문헌이나 역사적 기록에서 이들의 성별정체성을 추론하거나, 현대의 기준으로 지정성별 — (당대의 성규범에 따른) 성역할 — 성별정체성의 합치 혹은 불합치를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과 관계없이 비규범적인 젠더 실천이나 표현을 포괄적으로 가리킬 때 비규범적 젠더, 젠더비순응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지정성별 남성이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거나 성별표현을 드러낼 때에는 MtF(male to female), 지정성별 여성이 남성의 정체성을 가지거나 성별표현을 드러낼 때에는 FtM(female to male)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현재 영어권의 성소수자를 통칭하는 LGBT<sup>4</sup>라는 용어는 LGB라는 성적 지향과 T라는 젠더 정체성을 구분하지만, 실제로 구미의 성소수자 운동에서도 1980년대까지 트랜스젠더는 대체로 동성애자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젠더 개념이 섹

<sup>3</sup> 논바이너리(non-binary)란 성별정체성이나 성별표현이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구분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며, 트랜스 여성, 트랜스 남성 등 지정성별과 반대되는 성별정체성과 구별하여 사용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트랜스젠더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sup>4</sup> L(레즈비언), G(게이), B(바이섹슈얼/양성애자), T(트랜스젠더)의 약자이며, 최근에는 Q(퀘스처닝 혹은 퀴어: 자신의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을 탐색 중이거나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의 틀을 거부함), I(인터섹스: 신체의 성별 특징이 이분법적인 남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 A(무성애자) 등과 보다 더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LGBTI, LGBTQ, LGBTQIA+ 등의 약자를 쓰기도 한다.

슈얼리티에서 본격적으로 분화되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다(월친스, 2021). 다른 문화권에서도 최근까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혼동되거나, 비규범적인 성적 지향과 실천, 성별정체성이 중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이성애,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범주가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은 1990년대 ‘뉴 하프’가 등장한 무렵으로, ‘성주체성장애’ 개념의 등장으로 단절이 이루어진다.

일본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졌거나 젠더크로싱 실천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 일부가 과거에 존재하던 ‘오카마, 오나베, 블루 보이, 죠소(女装), 단소(男装), 뉴 하프’ 등의 범주와 구분되는 ‘트랜스젠더(トランスジェンダー)’라는 용어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며, 2010년대 중반부터 활발해진다. 일본의 성소수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성적소수자, 섹슈얼 마이너리티(セクシャルマイノリティ), LGBT 등이 있는데, 이때의 ‘섹슈얼(セクシャル)’, ‘섹슈얼리티(セクシャルティ)’란 ‘性’의 역어로 영어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트랜스젠더 활동가도 자신의 성별위화감(젠더 정체성의 문제)을 ‘섹슈얼리티’로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다(杉山文野, 2020).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당사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구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트랜스젠더’의 용례처럼 분석적 범주와 현자의 범주가 불가피하게 중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 II. 젠더비순응의 변천: 역사적 전통과 서구담론의 유입

이 장에서는 일본의 젠더비순응적 실천과 정체성에 대한 해석, 1) 고대-근세 시기, 2) 근대(19세기 말~ 패전), 3) 현대: 전후~1990년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은 일본의 독자적인 성관념과 실천이 두드러지는 시기, 2)는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서구의 성담론이 수입된 시기로, 내용은 다르지만, 3) 시기의 젠더비순응자의 실천과 사회적 인식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까지 지속되는 비규범적 젠더,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고정관념의 바탕을 형성하였다.

일본은 고대부터 남성과 여성의 성별과 성역할의 구분이 엄격하였으며,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이상형이 명확했지만, 이러한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표현할 자격이 출생 시의 지정성별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Robertson, 1991: 90). 이성애나 성별이분법의 이탈 그 자체에 대한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금기가 존재하지 않았고, 동성애와 젠더비순응적 실천은 다양한 신분과 맥락에서 행해졌으며 그 자체로 문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그 실천이 봉건적 신분질서나 남녀의 성역할과 위계 등 사회의 질서를 교란할 위협이 있을 때 문제시되거나 금지되었다. 한편 19세기 말 근대화과정에서 유입된 서구의 성담론은 젠더비순응을 ‘이상성욕’, ‘성도착’ 등의 ‘비정상’적 범주로 이해하였다.

근세와 근대의 젠더비순응에 대한 접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비규범적 성적 실천은 예능이나 유흥, 성매매 등의 일상에서 분리된 영역, ‘음지’로 간주될 만한 영역에 분리되어 존재할 때 묵인되거나 용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태도는 전후 일본에서도 지속된다. 20세기 후반 대중적 상상력 속에서 젠더비순응자는 일본의 문화적 전통의 일부로서 존재해 왔지만 또한 유흥, 예능, ‘후조쿠(성산업)’처럼 일상, 혹은 정상적인 사회질서 바깥의 존재로 국한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기독교 전통이 있는 서구에서처럼 젠더비순응자에게 직접적인 탄압이나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드물고(Lunsing, 2005), 예능과 성산업, 유흥업에 존재하는 젠더비순응자나 그들의 표현은 일견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일상과 분리된 문화적 엔클레이브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용인되고, 희화화나 멸시, 연예지 가십의 대상이 되는 등 이분법적 성별과 이성애적 가족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주류사회에서 열등하거나 문제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성별 위화감을 느끼는 다수의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불편이나 고통을 경험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 1. 고대와 근세의 젠더비순응의 기록

고대의 고고학적·역사적 기록에는 다양한 크로스드레싱의 사례가 발견된다. 다네가(種子)섬의 야요이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여장 차림의 남성 인골, 『일본서

기(日本書紀)와 『고사기(古事記)』(8세기)에 여장 영웅으로 묘사되는 야마토타케루 등은 의례적인 맥락에서 남성의 여장을 영적인 능력과 결부시키는 믿음이 있었음을 시사한다(三橋順子, 2003a: 96-100). 한편 12세기의 문학작품과 전통예능 시라보우시(白拍子), 무로마치 시대(14~16세기)의 노가쿠(能樂) 등에서는 젠더크로싱을 요괴의 조화나 영혼의 빙의에서 찾는 등 초자연적인 설명을 부여하기도 한다(김정희, 2019).

에도시대(17~19세기) 젠더크로싱은 유흥, 예능의 맥락에서 섹슈얼리티, 특히 성매매와 결부된 점, MtF 실천이 두드러진 점에서 근현대의 젠더크로싱과 일정한 연속을 띠며, 젠더비순응자에 대한 대중의 고정관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 유명한 전통공연예술 가부키(歌舞伎)는 17세기 초에는 전원 여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부키의 후원자와 여성배우들 사이의 인가받지 않은 성매매, 여성이 외부 활동이 유교적인 성규범을 교란한다고 판단한 막부에 의해 1629년 여성의 공연이 금지되었고, 전원 남성배우로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Robertson, 1991: 51-52). 여성역할의 온나가타(女形)는 정교한 화장과 장식, 여성스러운 말투와 몸놀림으로 여성'다움(形)'을 표현하였다. 도쿠가와시대의 지식인들은 온나가타를 여성다움의 전범으로 칭송하며 여성들이 본받을 것을 권장하였다. 이것은 남성인 온나가타가 구현하는 여성성이 생물학적인 여성의 여성성보다 우월하다는 당시의 성별위계적 관념을 암시하기도 한다(Robertson, 1998: 51).

여장남성의 존재는 하급 유흥과 성매매 공간에서도 폭넓게 퍼져 있었다. 유곽이나 숙박업소, 차야(茶屋) 같은 유흥, 접객 공간에는 남성에게 접대를 하거나 가무, 성을 파는 가게마(陰間)라는 여장 남성들이 있었다. 가게마는 천시를 받았지만, 젠더비순응적 남성들이 여성적인 젠더실천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했고, 기량이 뛰어난 가게마는 온나가타가 될 수도 있었다(三橋順子, 2003a: 98-100). 풍기문란의 이유로 18세기 후반부터는 성매매를 하는 가게마차야는 폐지되었다. 반면 여성의 섹슈얼리티나 젠더 표현의 자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1830년대에 기록된 다케(竹)/다케지로(竹次郎)라고 불리는 남장여성의 사례는 다케지로라는 이름으로 남자 행세를 하던 여성이 고용주에게 강간을 당하고, 남성을 사칭하여 “인륜을 더럽힌 죄”와 관리를 사칭한 죄로 귀



양보내져서 사망한다(Robertson, 1998: 54).

에도 막부 시기에 유흥과 예능의 영역에서 MtF 젠더크로싱의 실천은 명시적·암묵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FtM의 젠더크로싱을 금지하고 처벌한 것은 일견 모순되어 보이지만, 봉건적 신분제도와 남존여비라는 젠더 질서를 지키기 위한 ‘풍기단속’이라는 의도에서 일관되는 측면이 있다. 예능과 유흥, 특히 성매매와 결부된 크로스드레싱이나 섹슈얼리티는 이성애(여색)든 동성애(남색)이든 주로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가 높은 남성 고객의 필요를 위해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질서에 부합한다. 남존여비의 사회질서에서 온나가타처럼 남성은 여성보다 더 훌륭하게 ‘여성다움’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남성보다 낮은 지위의 여성의 젠더 수행에 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의 남성 젠더 수행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되었다.

## 2. 서구 성담론의 수입과 ‘변태성욕’으로서의 트랜스젠더

동성애와 젠더크로싱은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기에 서구에서 도입된 성담론의 영향으로 새로운 틀에서 해석되었다. 19세기 말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한 성과학(sexology)은, 성을 의과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성애와 동성애를 정상-이상이라는 이항대립적인 틀로 파악하였다. 여장 등 남성의 여성적 젠더수행은 ‘변태성욕’, ‘성도착’으로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McLelland, 2005: 15-22). ‘슈도(衆道)’라 불리며 사무라이 남성들의 고양된 관계로 여겨지던 남성동성애는 ‘계간(鷄姦)’이라는 경멸적인 용어로 폄하되고 일시적으로 금지되기도 했다. 막부 말기의 가게마차야의 폐지와 온나가타의 무대 밖 여장 금지는 일상에서 MtF 젠더크로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거하는 효과를 초래했다(三橋順子, 2003a).

근대 일본이 천황을 정점으로 한 가족국가로서 재편되면서, 제국의 ‘건강’은 그 구성단위를 이루는 근대적 가족의 건강과 동일시되고, 우생학을 기반으로 한 ‘위생’이라는 틀 안에서 부부간의 이성애적 결합과 성역할 규범 등 성적인 건강 역시 국가관리의 대상이 되었다(Frühstück, 2000). 1930년대 이후의 전시체제에서

병사로서 국가를 위해 싸우는 남성과, 그러한 남성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양치 현모’로서의 여성이라는 성규범 이외의 실천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통제되었다.

한편 1920년대에 ‘업기’와 ‘변태’를 추구하는 ‘에로 구로 난센스’(에로틱 그로테스크 난센스)라는 잡지를 매개로 한 하위문화가 등장하였다. 잡지에는 ‘성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필자들이, 성과학의 관점에서 비규범적인 성-변태성욕-을 문제시하는 태도로 저술하였다. 하지만 이런 출판물의 주 독자층은 ‘변태적인 성’을 학술적이거나 윤리적인 관심보다는 흥미위주로 접근하고 소비하였으며, 성별비순응자들 역시 이러한 잡지를 사서 보거나 투고하는 행위, 취재를 통해 사례에 등장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을 유지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Ishida et al., 2005; McLelland, 2005).

이와 같이 일본에서 젠더크로싱의 전통은 고대부터 존재해 왔고, 젠더비순응 실천 및 정체성의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막연한 감각을 형성해 왔다. 특히 가부키 온나가타, 가게마 등 근세 예능과 유흥의 맥락과, 근대에 서구에서 수입된 ‘변태성욕’, ‘성도착’이라는 개념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젠더비순응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의 근거를 이룬다. 대중문화나 미디어에서 비규범적인 정체성이나 실천을 ‘변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태도는 현대 일본에서도 지속되었다.

### 3. 전후 — 1990년대: 유흥, 예능 속의 젠더비순응과 낙인

전후의 유흥업과 성매매부터 1980-90년대의 예능에 이르기까지 젠더비순응은 MtF를 중심으로 1990년대까지 가시화된다. 이는 여성적 젠더표현과 남성동성애라는 섹슈얼리티의 혼동, 예능, 유흥이나 성매매라는 맥락에서 과거와 일정한 연속성을 띠면서 나타난다. 이후 이들에 대한 이미지는 일상과 괴리되어 주류사회 바깥에 있는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편견은 20세기 말 ‘성주체성장애’ 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성별위화감을 느끼던 다수의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고통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針間克己·相馬左江子, 2004; 스기야마, 2006)

### 1) 전후 성산업과 MtF의 낙인

전시체제 하에서 검열과 억압에 의해 비가시화되었던 젠더비순응과 동성애적 실천은 전후 일본에서 되살아난다. 패전 직후 일본의 대도시에서는 암시장과 함께 풍속업과 유흥업이 되살아난다. 당시의 풍속업, 유흥업은 전후 미군 점령기의 서구화로 인한 성규범의 완화라는 측면 외에,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성매매를 생계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빈곤한 남녀들이 구매자 남성의 욕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근세 일본의 유곽과 유사성을 띤다. 즉 성 판매자에게 있어서 성매매란 섹슈얼리티의 표현보다는 생계의 문제였다. 에도시대부터 교통의 요지이자 유곽, 숙박업, 유흥업이 집중해 있던 도쿄의 우에노와 신주쿠, 오사카의 토비타 등의 사카리바(盛り場, 번화가, 환락가)에는 ‘판판’이라고 불리는 여성 성매매자와 함께, 여장을 하고 여성들 사이에 섞여 성매매를 하던 단쇼(男娼)들이 있었다. 전장이나 군수공장 등에서 돌아온 복원병이나 유랑 예술인 출신의 단쇼들은 동성애자 남성임을 숨기고 여성을 찾는 남성고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砂川秀樹, 2015; 加藤政洋·三橋順子, 2015; 김성운, 2022).

1950년대 중반 신주쿠에는 완전한 여장 대신 화장을 하고 몸짓이나 말투가 여성적인 미소년들이 남성 고객을 상대로 공연을 하거나 함께 차를 마시고, 접객이나 ‘연애(성매매)’를 하기도 하는 ‘게이 바’가 나타났다. ‘게이’라는 용어는 미군정시기의 미군 동성애자들에게서 유입된 용어다. 당시 ‘게이 보이’는 여장을 하고 성매매를 하는 단쇼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지만, 여성적인 남성이라는 젠더표현과 남성동성애자라는 섹슈얼리티의 혼합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었다. ‘게이’라는 표현에 ‘여성적인 남성’, ‘성매매, 유흥업 종사자’라는 낙인이 입혀져, 1990년대 성소수자운동에서 처음 LGBT라는 용어를 도입했을 때 적지 않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게이’라는 말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다(McLelland, 2005; Lunsing, 2005).

이러한 낙인효과는 1960년대 ‘블루 보이 사건’으로 인해 강화되었다. ‘블루 보이’란 1960년대 카바레식 공연을 했던 나이트클럽 르 카루셀의 MtF 트랜스젠더 퍼포머들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으나, ‘게이 보이’와 마찬가지로 ‘풍속,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자 같은 남자 동성애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블루 보이 사건’은 1964년 한 산부인과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블루 보이’에게 불법적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뚜렷한 이유 없이 생식능력을 불능으로 만드는 의료적 절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의 우생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이는 가족의 성과 재생산을 국가의 통제와 관리대상으로 간주하던 제국주의 시대(Frühstück, 2000)의 유산인 우생보호법이 전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MtF 트랜스젠더를 성매매와 결부시키는 낙인과 함께 ‘성전환수술’의 불법적인 이미지가 강해졌다(いっき, 2003).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일본 국내의 성전환수술은 지극히 제한되었으며, 수술을 통한 의료적 트랜지션을 원하는 트랜스젠더는 해외에 나가서 수술을 받는 수밖에 없었다. 유명한 여장 연예인 카루셀 마키는 모로코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최초로 호적의 성별을 바꾼 연예인이 되었다(虎井まき衛, 2003; McLelland, 2005).

## 2) 대중문화 속의 젠더비순응자 연예인: 오카마, 오네, 뉴 하프

한편 1960년대부터 유흥업, 풍속업뿐 아니라 예술, 대중문화, 미디어 등의 주류문화에도 여장남성 연예인이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가부키와 다카라즈카 등 연행예술에서 젠더크로싱 전통이 있었기에 대중들은 거부감없이 수용하였다. 이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미와 아키히로(三輪明宏)이다. 1935년생인 미와는 1950년대부터 게이 바와 카바레 등에서 샹송가수로 활동한 ‘게이 보이’ 출신으로, 아름다운 외모로 ‘시스터 보이’라고 불렸고, 1960년대부터는 영화에 여성 캐릭터로 출연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동성애자임을 공표하였고, 작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와의 로맨스로도 화제가 되었다. 미와는 평생을 걸쳐 싱어송라이터, 배우, 성우, 저술가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해 왔고, 문화예술에 대한 일생의 공헌을 인정받아 2021년에는 NHK방송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미카와 켄이치, 쌍둥이 형제인 오스기와 피코 등의 오네계(オネエ系) 연예인들이 1960~1970년대부터 활동해 왔다. 이들은 여장은 하지 않고 가볍게 화장을 하거나 오네고(オネエ語: 남성동성애자 일부가 사용하는 특유의 여성적인 말투와 발성, 제스처)를 사용하고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연예인들의 존재는 일찍부터 MtF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예능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지게 했다. 이렇게 주류 대중문화와 음성적인 하위문화에

서 여장 남성의 존재를 통해, 대중의 상상력 속에서 “남자를 좋아하는(남성과 성 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 같은(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오랫동안 동일시되었다. 이러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혼동은 ‘오카마’라는 속어에서도 드러나는데, 남성동성애자를 비하해서 일컫는 표현이지만 여장남성, 외모나 말투, 몸짓이 여성적인 남성에게도 구분없이 사용되기도 했다(Lunsing, 2005).

1980~1990년대에 등장한 ‘뉴 하프’는 과거의 ‘남성동성애자’와 ‘여자 같은 남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얼마간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중간’이라는 의미에서 ‘뉴 하프’<sup>5</sup>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쉬 메일’ ‘미스터 레이디’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들은 유흥업, 풍속산업, 예능에서 활동하였다. 뉴 하프의 존재가 ‘오카마’ ‘게이보이’와 구분되는 점은 젠더-섹슈얼리티가 신체를 통해 가시적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뉴 하프는 일반적으로 가슴과 얼굴 성형, 호르몬 요법 등으로 여성의 외모를 갖추고, 화려한 화장과 몸매를 드러내는 관능적인 옷차림으로 여성다운 외모와 말투, 몸놀림을 강조했다. 하지만 남성으로 태어났으며 남성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공공연하게 인정했다(Robertson, 1998; McLelland, 2005). 전술한 ‘블루 보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 성전환수술(성기 성형)이 1997년까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뉴 하프에게 이것은 개인의 선택과 상관없는 불가피한 현실의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양 성별의 성적 특질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유흥업에서 강조되었고, 대중문화에서 이에 대한 에로틱한 호기심이나 흥미를 야기함으로써 이들은 성별정체성보다는 일탈적이고 성애화된 이미지가 대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려한 MtF 연예인들의 존재는 유흥이나 풍속업에 종사하는 도덕이나 규범에서 벗어난 존재, 화려한 연예계에 어울리지만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 괴리된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지속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종종 방송에서 웃음거리로 소비되고, 여성적인 오네고를 사용하는 도중에 남성적인 목소리나 거친 언행을 구사함으로써 스스로를 ‘가짜 여자’로 폭로시킨다는 점에서 시스젠더의 성별 이분법의 위계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Ho, 2021).

<sup>5</sup> 원래 ‘하프’란 일본인과 비아시아계 외국인의 자녀를 지칭하는 말이다.

### 3) FtM의 비가시화

전통문화와 현대의 유흥, 대중문화에서 MtF가 과다대표된 것에 비해, 여성적이지 않은 남성동성애자, 여성동성애자, FtM 트랜스젠더 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20세기 끝무렵까지도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오카마의 반대 의미로 남장 여성, 혹은 여성과 관계를 맺는 여성을 의미하는 ‘오나베’라는 용어가 존재했지만, 남장 여성들이 호스트로 여성을 접대하는 오나베 바 등 극히 제한된 하위 문화를 제외하고는 오카마처럼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진출이 제약된 일본에서 신분을 엄격하게 확인하지 않는 저학력, 저임금의 남성 일자리에서는 여성이 남장을 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흔했다고 전해진다. 경제적 이유든,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지향 때문이든, 남장여성들은 남성 사이로 스며들어가서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Lunsing, 2005; McLelland, 2005).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세기 전반에 걸쳐 대중의 인식 속에서 젠더비순응 실천과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대표한 것은 유흥업과 성산업, 예능에 종사한 MtF들이었다. 이들의 젠더 표현과 동성애 성향은 ‘변태적’ 성향으로 해석되었고, 이들이 주류사회의 일상적인 삶을 침범하지 않고, 주변적이고 도덕적으로 열등하게 간주되는 문화적 엔클레이브에 머물러 있는 한 용인되었다. 예능이나 유흥에서의 화려한 모습은 비규범적인 젠더 실천이나 정체성이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인간으로서 뒤떨어지는 존재처럼 바라보는 세상의 편견’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 등 ‘낮의 세계는 성소수자에게 너무 차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사실은 간과되었다(스기야마, 2007: 258).

## III. 21세기의 젠더비순응자의 표상과 실천:

### 보통 사람으로서의 트랜스젠더

20세기 후반 부각된 ‘오카마’, ‘뉴 하프’ 정체성은 그 이후로도 예능과 유흥의 맥락에서 지속되는 한편, 1990년대 말부터 등장하는 새로운 트랜스젠더 정체

성과 실천들은 존재의 일상성, 평범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흥업, 성산업 종사자, 일상과 괴리된 존재라는 과거의 고정관념과 단절되는 모습을 보인다. ‘보통’(평범함이라는 어감)의 삶과 행복을 누리고 싶은 ‘보통’ 사람이지만 스스로 느끼는 성별위화감과 사회의 이분법적 성별 규범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서 고통 받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오나베’나 ‘뉴 하프’처럼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나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라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타고난 점이라는 점,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은 인권의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다.

전술했듯이 21세기 일본의 ‘성주체성장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연구는 의료적·법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일본의 자료는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연구자가 입수한 수기, 잡지 등의 성주체성장애 및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저술을 참조하여 ‘성주체성장애’와 ‘트랜스젠더’가 전 시기의 젠더비순응 정체성에 대해 가지는 차별성, 그리고 둘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주체성장애’라는 진단명이 대중화된 2000년대 초반의 자료로는 『語り継ぐトランスジェンダー史: 性同一性障害の現在・過去・未来(구전되는 트랜스젠더사: 성주체성장애의 현재, 과거, 미래. 이후 트랜스젠더사로 표기)』(2003), 『性同一性障害30人のカミングアウト(성주체성장애 30인의 커밍아웃. 이후 커밍아웃으로 표기)』(針間克己·相馬左江子, 2004), 『トランスジェンダリズム宣言: 性別の自己決定権と多様な性の肯定(트랜스젠더리즘 선언: 성별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성의 긍정)』(米沢泉美, 2003), FtM 활동가이자 방송인인 스키야마 후미노의 첫 번째 자서전 『더블 해피니스』(일본어판 2006, 한국어판 2007)를 참고하였다. ‘트랜스젠더’라는 용어가 부상한 2010년대 후반 이후에 출간된 자료로는 『元女子高生、パパになる(한때의 여고생, 아빠가 되다. 이후 아빠가 되다로 표기)』(杉山, 2020), 온라인 소책자 『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リアル(트랜스젠더의 현실)』(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リアル 製作委員会, 2021), FtM을 겨냥한 잡지 『FtM Magazine LapH』를 참조하였다. 특히 토라이 마사에와 스키야마 후미노는 출판, 대중 강연, 성소수자 관련 법 제정 운동, (스키야마의 경우)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및 NHK 방송활동 등으로 널리 알려져서 당시의 GID 혹은 트랜스젠더를 대표하는 존재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이들의 활동에 영감

을 받은 당사자들의 선택과 실천에 영향을 준 인물들이라는 중요성이 있다.

## 1. 성주체성장애: 트랜스젠더의 병리화, '장애'로서의 트랜스젠더

비교적 단기간에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의료적·사회적·법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97년 '성주체성장애'를 둘러싸고 일본 의료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이다(虎井まさ衛, 2003; 針間克己·相馬左江子, 2004). 병리화모델은 트랜스젠더를 신체와 정신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정신과적 질병 혹은 장애로서 의료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미국정신의학회가 1980년과 1987년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II)과 개정판에 성전환증과 성주체성장애를 정신장애로 포함시킨 것, 그 영향을 받아 국제보건기구(WHO)가 1992년 국제질병분류 제10판에서 성전환증과 성주체성장애를 정신장애로 포함시키는 등 국제적인 의료기준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미국정신의학회에서 1973년 DSM-II에서 동성애를 삭제함으로써 비병리화한 것과 상반되게 1980년대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에 추가한 것은, 트랜스젠더를 낙인찍기 위해서보다는 동성애와 달리 호르몬치료, 수술 등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트랜스젠더에게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박한희, 2018).

이러한 접근은 다음 변화에서 확인된다. II장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블루 보이 사건'으로 당시 '성전환수술(sex change surgery)'이 성매매와 같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불법화된 것과 달리, 1997년 윤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성별적합수술(sex reassignment surgery, 앞으로 SRS로 표기)'이란 몸과 정신의 성별을 일치시킴('성별'을 '적합'시키는 것)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의료적, 윤리적 조치로 받아들여졌다(針間克己·相馬左江子, 2004). 1997년에는 성주체성장애 환자의 치료를 둘러싸고 일본정신신경학회와 사이타마의과대학 윤리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같은 해 일본정신신경학회에서는 '성주체성장애의 치료에 관한 답신'을 발표하였다. 1998년에 공식적으로는 일본 최초의 SRS가 실시되었다. 이후 일련의 논의를 거쳐 '성주체성장애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2003년에 통과되었다.



### 1) '성주체성장애'와 '잘못된 몸'의 대중적 재현

『트랜스젠더사』(2003)를 저술한 FtM 작가 도라이 마사에(虎井まさ衛)는 이 시기 GID의 얼굴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대표적이고 적극적으로 저술, 강연, 교육을 통해 GID 가시화에 앞장선 인물이다. GID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기 전인 1994년부터 10년에 걸쳐 개인적으로 FtM 소식지를 발행해 왔으며, 『트랜스젠더사』에는 10년간의 소식지 및 뒤에 소개할 안도 히로마사와의 대담이 수록되어 있다. 1963년생인 도라이는 아직 일본에서 '성전환수술'이 불법이던 1989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별적합수술을 받았다. 기억하는 한 언제나 자신이 남자라고 믿었고, 언젠가 페니스가 자랄 것이라 믿다가, 5학년 때 월경에 대한 교육을 받고 충격을 받았으며, 카루셀 마키의 성전환수술 소식을 뉴스에서 보고 성전환을 결심했다(針間克己·相馬左江子, 2004: 124)고 한다.

도라이는 수술까지 마친 자신을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로 소개한다. 1980년 DSM-III에 추가된 트랜스섹슈얼리즘('성전환증'으로 번역된다)은 외양을 바꾸거나 사회적으로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인정받는 사회적 트랜지션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정성별과 다른 젠더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 호르몬치료와 가슴 및 성기 수술 등 외과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신체형태까지 완전히 변형시키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박한희, 2018).

도라이의 진술은 '잘못된 몸에 갇힌 존재(trapped in the wrong body)'라는 서사를 강조하고 있다. '잘못된 몸'이란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영혼 혹은 정신과 반대인 성별의 몸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며, 정신의 성별과 신체의 성별을 '적합'시킬 때까지 성별위화감(gender dysphoria)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믿음이다(Engdahl, 2014; Moschella, 2021). '잘못된 몸' 서사의 정신-신체 이원론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설명틀이지만, '잘못된 몸에 갇힌' 느낌으로 신체와 반대의 성별을 추구하는 트랜스젠더는 일부다. 남성-여성의 이분법 어디에도 일치하지 않는 성별정체성을 가진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도 있으며, 수술 등의 신체변형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충실한 삶의 필수조건이라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잘못된 몸' 담론은 젠더위화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류사회의 시스젠더 인구들이 그나마 납득하기 쉬운 설명틀이라는 점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지만, 성별을 판단할 근거와 권위를 궁극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의학적 기준에 기댄다는

것, 신체에 기반한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의 이분법적 위계와 남-녀라는 본질주의적인 성별이분법을 강화한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Engdahl, 2014).

2001년 드라마 <3학년 B반 긴파치 선생>에서 ‘성주체성장애’가 다루어진 방식이 대표적이다(虎井 2003; いっき 2005). <긴파치 선생>은 1979년부터 2011년까지 방영된 인기 학원드라마로, 학업경쟁, 십대의 임신, 자살, 등교거부 등 당대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을 드라마에 녹여 내어 호평을 받아왔다. 도라이를 포함한 GID 당사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쓰여진 FtM ‘여중생’ 캐릭터 츠루모토 나오는 성별위화감의 고통을 디테일하게 연기하였다. 마치 한국에서 하리수가 데뷔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도 ‘트랜스젠더’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듯이, 츠루모토 나오는 대중의 상상력 속에서 성주체성장애의 대명사가 되었다(小山内美江子, 2003). 하지만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몸은 여자, 뇌는 남자’라는 대사를 삽입하거나, 나오가 자신의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싫어서 포크로 목을 찌르는 등, 실화에 바탕했다고 해도 극단적인 젠더위화감의 사례만을 사용하여 GID 및 트랜스섹슈얼 중심의 서사에 들어맞지 않는 다수의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지우고, 성주체성장애인을 고통뿐인 불쌍한 존재로 재현했다는 지적 역시 받고 있다(虎井まさ衛, 2003: 150-165).

토라이 마사에 자신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GID보다 폭넓고 복합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책이나 대담을 통해 ‘성별위화감 경험자 > 성주체성장애 > 성전환증(트랜스섹슈얼)’ 등의 도식을 통해 젠더비순응자 내에도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함을 소개하고 있다(安藤大将·虎井まさ衛, 2003: 183). 또한 극적인 설정이나 대중 계몽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虎井まさ衛, 2003: 150-165) 하지만 『구술되는 트랜스젠더사: 성주체성장애의 현재, 과거, 미래』라는 책 제목에서 보듯 대중화를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트랜스젠더=성주체성장애’라는 단순화된 설명틀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2년에는 경정(스피드보트 레이스) 여성선수인 안도 치나츠(安藤千夏)가 FtM으로서 커밍아웃하고, 트랜지션 후 안도 히로마사(安藤大将)라는 이름으로 남성 선수로 일본경정협회에 재등록함으로써 화제가 되었다. 트랜스젠더 선수의 스포츠경기 출전자격은 현재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이지만, 선수의 성별

이 경기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정 종목의 특성상 안도의 성별변경과 선수 재등록이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sup>6</sup> 『트랜스젠더사』에는 토라이와 안도의 대담이 수록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자신의 트랜지션 경험과 정체성 이외에도 GID를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등 GID의 대표성을 띤 인물로서 GID의 재현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도 엿보인다(安藤大將·虎井まさ衛, 2003).

공교롭게도 토라이, 안도, 그리고 <긴파치 선생>의 주인공은 모두 FtM인데, 이 때문에 대중의 지식 속에서 GID=FtM이라는 고정관념이 굳어진 측면이 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MtF가 게이 보이, 뉴 하프, 오카마 등 유흥업계 종사자라는 고정관념과 단절하는 과정에서 FtM이 부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세계 각지의 트랜스젠더 연구에서 일관되게 MtF가 FtM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유독 일본에서 FtM 진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징도 GID 담론의 대중화의 영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미디어에서 FtM의 모습이 과다대표된 것과 특례법에서 성별정정을 위해 요구하는 수술의 정도가 FtM에게 더 용이한 것, 여성에게 억압적인 성역할에 불만을 가진 것과 성별정체성의 위화감을 혼동한 것 등의 원인으로 해석된다(東優子, 2016).

## 2) GID 당사자 운동과 법률적인 변화

미디어를 통해 GID가 주목받게 되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GID의 커밍아웃과 당사자운동이 두드러졌다. 당사자들 30인의 수기를 담은 『커밍아웃』(針間克己·相馬左江子, 2004)에서도 인터뷰이의 직업군은 자영업자, 학생, 간호사, 회사원, 공무원, 주부, IT 등 다양하면서도 ‘평범한’ 직업이 대부분이다. 제목이나 자기소개에는 GID가 등장하고 있으나, 성별 위화감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으며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한 목표나 과정은 반드시 호르몬치료·성적합수술·호적

<sup>6</sup> 트랜스젠더 선수의 스포츠참가에 대한 논란은 압도적으로 트랜스젠더 여성(MtF)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가짜 여성(혹은 남성)이 여성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논리가 우세한 반면, 트랜스젠더 남성(FtM)의 남성스포츠 참여는 큰 관심이나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이타니 2020). 이는 생물학적 성(sex)이 사회문화적 성(gender)에 우선한다는 본질주의, 남성의 신체는 트랜지션 후에도 근본적으로 남성의 신체이며 여성의 신체보다 우월하다는 성차별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APA, 2023).

변경이라는 수순을 따르지 않는다. 이들은 성별위화감 이외에는 평범한 존재이지만, 남녀로 성역할이 엄격하게 분리된 일본사회에서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성별위화감으로 어릴 때부터 학교, 직장, 병원, 화장실 일상의 공간에서 고통받고, 주류사회의 성별구분에 대한 억압으로 학교에서의 괴롭힘, 가정에서 학대, 우울증, 자해, 등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가 뒤늦게 GID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 뒤늦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이다.

책의 의학적 감수를 맡은 GID 전문의 하리마는 책 중간중간에 의학적,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성별 위화감을 느끼는 모두가 GID는 아니며 의학적 진단명에 기대지 않는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으나, 드라마의 영향으로 GID가 사실상 트랜스젠더를 대표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음을 지적한다(針間·相馬, 2004: 163).

『커밍아웃』(針間克己·相馬左江子, 2004)이나 『더블 해피니스』(스기야마, 2007) 등의 당사자들의 기록에서 <긴파치 선생>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 혹은 자신을 타인에게 설명할 때 <긴파치 선생>의 예를 드는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는 유명인이나 대중문화를 통한 ‘성주체성장애’ 담론이 많은 한계를 안고 있지만,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범주를 제공함으로써 성별위화감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고통을 겪어오던 다수의 개인들에게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모색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오카마’, ‘오나베’, ‘뉴 하프’ 등 유희이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변태’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GID 인지가 늦어져 긴 자기부정과 고통이 길어졌으며, 그러한 잘못된 자신을 ‘고치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결혼이나 출산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후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고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GID 이전의 젠더크로싱이 ‘변태성욕’의 문제, 혹은 예능, 유희이라는 직업 내지는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이라는 틀로 해석된 반면에, GID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장애나 병이라는 인식, 성별위화감으로 겪는 고통은 인권의 문제라는 해석이 역설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수용하기 쉽게 한 셈이다(Ho, 2021). 당사자들은 집단적으로 호적상의 성별정정신청을 하거나, 시위나 언론을 통해 호적 성별정정과 GID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였다.

2003년에는 ‘성주체성장장애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후 특례법)이 2003년 통과되었고, 일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성주체성장장애자에게 호적상의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 이 특례법은 1) 20세 이상, 2) 현재 혼인상태가 아닐 것, 3) 현재 자녀가 없을 것, 4) 생식선을 제거했거나 생식선의 기능을 영구히 상실했을 것, 5) 성별적합수술로 원하는 성별의 성기의 외관을 갖추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 근거는 “1. 성별변경은 불가역적이므로 본인의 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2. 현행법질서상 해석곤란한 동성혼(同性婚)이라는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3. 친자관계 등 가족질서의 혼란을 막고 자녀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필요가 있다, 4. 성별취급의 변경을 인정하는 이상 원 성별의 생식능력이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다른 성별에 관한 외성기와 유사한 외관이 없다는 이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생활상의 혼란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니노미야, 2006: 155)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률은 좁은 의미의 GID에 대한 고정관념에 바탕하고 있어 특례법의 성별정정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다. 또한 3의 요건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진단을 깨달을 기회가 오기 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둔 GID 당사자들에게 많은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 니노미야(2006)의 연구는 실제 판례를 검토하여 ‘아버지=남자, 어머니=여자’라는 전통적인 가족구범이 실제로 존재하는 가족들의 다양한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여 성별 정정을 각하당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고통받는 사례, GID임에도 법적인 성별변경을 하지 못하여 직장 등에서 ‘가짜’로 오인받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 등을 제시하며 소수자의 권리옹호를 위한 사법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교육현장에서도 성주체성장애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대책이 진행되어 왔다. 2010년 문부과학성이 각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 ‘성주체성장애 학생 당사자의 심정을 배려한 대응’을 하도록 통지하였다(NHK, 2010: 22). 2021년에는 MtF 중학생이 교복의 성별구분을 없애 달라고 도쿄도의 교육위원회에 진정을 한 것을 계기로, 도쿄의 에도가와구는 1/3 이상의 학교가 성별에 관계 없이 바지와 치마 원하는 스타일을 착용할 수 있는 ‘젠더리스 교복’을 채택하였다(NHK, 2021). 남녀교복이 시대착오적이고 남녀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하는 학생, 학부모, 교육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화장실 표시

에서 남녀 색깔구분을 없애거나, 출석부에 남녀구분 없이 이름 순서에 따라 기재하는 등, 작지만 습관적으로 행해져 온 무의미한 남녀구분을 없앤 학교들도 있다. 당사자의 문제제기로 촉발되었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폭넓게 적용되게 된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주체성장에 담론은 근대 이전부터 유희, 예능, 성매매라는 틀 안에서만 젠더비순응적 실천을 용인하고, ‘변태성욕’이라는 비정상적인 성의 형태로 재현해 왔던 관행에서 단절하여 당사자들을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같은 일상의 존재로 바라보고, 인권의 틀에서 법적·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트레법의 조건에서도 보듯 트랜스젠더를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신체위화감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적 성별정정을 위해 원하지 않는 수술을 하거나, 수술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남녀의 특정 성별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 등 GID의 고정관념이나 의료,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많은 개인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즉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수용할 수 있는 소수자(acceptable minority)’로 간주한 것이다(Yamada, 2022). 무엇보다도, 자신이 장애인, 정신질환자임을 증명해야지만 신체와 정신의 성별, 법적 성별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을 ‘비정상적이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

## 2. ‘LGBT의 T’: 병리화를 넘어선 트랜스젠더의 권리추구

글로벌 성소수자 담론에 영향을 받은 트랜스젠더 이론이나 LGBT 담론 역시 1990년대 말부터 일본에 소개되었으나, 소수의 당사자 연구자와 활동가를 통해서 유포되었을 뿐 GID만큼 대중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성소수자를 통칭하는 LGBT라는 용어와, 그 일부로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학교나 기업문화 등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이버시티’ 혹은 ‘D&I(Diversity and Inclusion)’ 담론이 대중화되는 2010년대 중반~202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 1) 트랜스젠더리즘과 X 젠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GID 담론이 주도적이던 시기에도, GID 프레임 을 거부하거나 상대화시켜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은 존재했다. 일례로 요네자와 의 『트랜스젠더리즘 선언』(2003)은 스스로를 ‘폴타임 MtF, MtF 크로스드레서, 여 장가, 비전형적 성주체성장애, 트랜스-논패스,’이자 ‘작가, 강사 병원장, 호적연구 가’ 등의 다양한 성별/직업정체성을 표방하는 저자들의 글을 모은 책이다. 책 의 띠지에 적힌 “나의 성별은 내가 정한다! 젠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 양한 젠더의 존재방식을 인정하자”라는 글귀는 같은 시기 출간된 토라이나 하 리마·소마의 책에서 보이는 GID 담론의 신체-정신 이원론, 운명론에 가까운 ‘잘 못된 몸’ 담론과 확연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GID를 포함한 광의의 트랜스젠더 개념과 이의 현실적 적용(사회 적 수용, 트랜지션을 둘러싼 의료문제, 호적정정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다루 고, 고대에서 동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젠더크로싱과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역사를 개괄한다. 또한 미국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추이와 초기 트랜스젠더 활 동가인 버지니아 프린스의 트랜스베스티즘(크로스드레싱과 트랜스젠더 이론화의 바탕이 되는 저술)을 소개하면서 비교문화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포 괄적인 트랜스젠더에 대한 분석은 일본의 전통 안에서 젠더비순응의 역사를 되 살려내는 동시에, 글로벌한 성소수자 담론 안에서 일본 트랜스젠더 현실을 위치 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에 간사이 지역의 성소수자 출판물과 온라인 포럼을 중 심으로 ‘X 젠더’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X 젠더는 트랜스젠더 활동가나 작가들 에 의해 사용된 표현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 어딘가의’ 영어권에서는 ‘젠더 퀴어’나 ‘논바이너리’라고 흔히 불리는 젠더정체성을 의미한다. 이분법적 성별관 념과 ‘마음의 성별과 몸의 성별이 달라’서 생긴 ‘성주체성장애’를 ‘성적합수술’로 치료한다라는 의료적인 관점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등장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다만 X 젠더는 극소수의 급진적인 성소수자 활동가들에 의해 주로 온라인과 출판물을 통해 유포되어 그 의미와 맥락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 때문 에 GID에 대해 정보를 검색하던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X 젠더를 GID의 하위 그룹이나 경도의 GID로 오인하고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변화하게 되었다(Dale,

2020).

위에서 보듯 GID 담론의 제약과 한계에 대한 인식,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폭넓은 탐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소수의 당사자 서클을 제외하고는 대중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다양성 담론과 트랜스젠더 비병리화

2010년대를 즈음으로 성주체성장애 담론과 거리를 두고 LGBT의 일부로서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국제사회와 일본에서 일어난 몇 가지 변화와 관련이 있다.

2010년부터 UN을 위시한 국제기구와 국제인권단체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과 건강을 중요한 의제로 간주하여 각국의 성소수자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원국의 성소수자 인권대책이나 관련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UN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UN LGBT 코어국인 일본은 국내에서 성소수자 대책이 불충분함을 수차례 지적받았으며,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유연정·장진영, 2023). 한편 2010년대부터 일본사회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관행에서 다양한 인재를 고용하고 재능을 살려 기업가치를 높이자는 취지의 ‘Diversity and Inclusion(D & I)’, ‘다이버시티 경영’이라는 개념이 확산되었다. 다이버시티 경영에서 새로이 주목받는 집단은 외국인, 여성, 고령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다(林順一, 2017; Win·Kato, 2021). 소수자 고용확대를 경영성으로 연결시키려는 태도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소수자의 수용이 주류사회의 윤리적 당위나 시혜적 태도가 아니라, 수용하는 주류사회도 혜택을 받는 호혜적인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있다.

트랜스젠더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화는 국제의료사회에서의 트랜스젠더의 비병리화이다. 1990년대에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권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채택된 ‘정신장애’ 진단이 시간이 흐르면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이유로 2010년대 이후 각국에서 트랜스젠더 비병리화가 시작되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기준 제11판에서 성주체성장애를 정신장애 항목에서 삭제하고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를 성건강 항목으로 옮겼다(박한희, 2018). 2014년에 일본정신신경학회에서는 ‘성주체성장애’라는 진단명을 ‘성별위



화'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오사카 레인보우 마츠리, 삿포로 레인보우 마치 등 대중화된 성소수자 운동이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 등장하였다.<sup>7</sup> 기업, 지자체 정부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치러지는 일본의 프라이드 행사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양지로 끌어내고, 'LGBT의 T(트랜스젠더)'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 3)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부상

2014년 일본 의학계에서도 진단명이 삭제되었지만, 2020년대인 현재까지도 '트랜스젠더=성주체성장애'로 인식될 정도로 성주체성장애는 대중의 인식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등장하는 당사자들의 표현에서는 20세기의 낙인이 남아 있는 명칭들이나 '장애'라는 호명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관찰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 혹은 운명의 피해자로서 비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만족과 자긍심, 사회에 변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NHK 교육방송 <하트를 잇자> 제작진의 『LGBT Book』(2010), FtM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LapH』(2018, 2020)와 웹진 『트랜스젠더의 현실』(2021)과, 트랜스젠더 남성 활동가이자 방송인인 스키야마 후미노의 자서전 두 권이다.

2006년부터 다양한 성소수자의 경험담을 방송에 소개해 온 <하트를 잇자>에서 제작한 『LGBT Book』에는 방송의 사회자 스키야마와 소닌과의 대담에는 다음과 같은 여는 말이 등장한다.

“사람이란 뭐지? 산다는 건 뭐지? 남자? 여자? ... 등등. 카테고리에 분류되거나, 명확한 답이 보인다면 속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거기에서 사고가 정지해 버리는 일도 있다.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생각을 계속해야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다고 할 수도 있다. 성이란 재미있어!”(NHK, 2010: 22)

<sup>7</sup> 도쿄의 경우는 1999년부터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성소수자 축제가 단속적으로 개최되다가, 2011년부터 현재에까지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비규범적인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비정상이나 결함, 장애로 보는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조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트랜스젠더의 현실」, 『LaPh』, 『아빠가 되다』에서는 ‘오카마’ ‘오나베’ ‘뉴 하프’ 등 과거의 용어들을 ‘직명’으로, ‘성주체성장애’를 의학적 진단명으로, 성별정체성인 ‘트랜스젠더’와 구분짓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현실」에는 의료, 학교, 직장의 트랜스젠더 관련 기사와 함께 FtM, MtF, 논바이너리 등 다섯 명의 사진과 인터뷰를 담고 있다. 이들 중에는 과거 ‘뉴 하프’나 ‘성주체성장애’ 정체성으로 생활해왔던 사람도 있지만, 신체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성별을 바꾸는 것’이 행복의 필수조건이 아니며, ‘나다운 나’를 찾은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LaPh』는 앞에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와 관련된 용어해설 페이지를 마련하고 있고, 의료적·법적 트랜지션이나 FtM에게 특화된 의복, 성보조기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 안에서는 트랜스젠더나 성주체성장애라는 용어를 아예 쓰지 않고 FtM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뷰 기사도 직업, 사생활 등에서 만족스럽거나 성공한 삶을 살고 있거나 FtM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개인들을 취재하여 신체의 상태나 정체성 범주에 구애받지 않고 ‘FtM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잡지의 중요한 목적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981년생인 FtM 스기야마 후미노는 여성펜싱선수로 일본 대표로 활동한 적이 있으나, 2005년 커밍아웃 후 2006년부터 NHK 프로그램 <하트를 잇자(ハートをつなごう)>의 사회로 출연, 2011년 이후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의 대표를 역임, 2015년 세타가야구 동성파트너십 조례 제정에 참여하는 등 LGBT운동의 주류화를 추구하며 트랜스젠더의 얼굴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긴파치 선생>과 토라이 마사에의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며 성장한 차세대라 할 수 있다. 2005년 출간한 첫 번째 자서전 『더블 해피니스』(번역판, 2007)에는 성장기의 성별위화감, 성별정체성의 커밍아웃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2020년 두번째 자서전 『한 때의 여고생, 아빠가 되다』에서는 커밍아웃 이후의 혼란, LGBT 운동에의 참여, 파트너와의 연애와 동거를 거쳐 인공수정을 통한 자녀출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다.

스기야마는 일상에서 ‘GID’, ‘오나베’, ‘오카마’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호

명되는 것은 흔쾌히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타인의 이해를 쉽게 하고 대화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본인은 어디까지나 ‘트랜스젠더’임을 반복하고 있다. LGBT 이니셜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며 트랜스젠더는 그 중 하나의 정체성임을 설명한 뒤, ‘오나베’와 ‘뉴 하프’는 ‘물장사(水商賣)’에서 쓰는 직업명으로 트랜스젠더와 동일하지 않으며, 네거티브한 의미가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첨언한다. 스스로 ‘오나베’라고 소개하거나 스스로를 ‘오카마’라고 자칭하는(트랜스젠더) ‘언니들’을 만나지만 타인에게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자학’과 ‘타학’의 차이라고 설명한다(杉山文野, 2020: 98).

성주체성장에 당사자 서술과 비교해 볼 때, 스키야마의 트랜스젠더 서술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공통점은 자신을 유별난 존재가 아닌 평범한 행복을 추구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위치짓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성별위화감’이 자신의 고통의 근원이라 생각하는 대신, 트랜스젠더인 자신을 평범하게 봐 주지 않는 사회의 시선에 의문을 품는다. 커밍아웃 후 자기가 무엇을 해도 “‘트랜스젠더’인 스키야마”로 보는 것, 심지어는 봉사활동으로 이웃의 청소를 하는 것조차도 “스키야마씨는 ‘성주체성장애’를 극복하고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로 보도되어 버리는 것에 쓴웃음을 짓는다. “나는 누구보다도 ‘보통’이고 싶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라는 필터가 한 장 겹쳐져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보통이 아니게 되어 버리고, 보통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화제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杉山文野, 2020: 7)

성주체성장애로 자신을 정의한 첫번째 자서전 『더블 해피니스』에서도, 병원 진단에서 겪게 되는 굴욕적인 경험을 서술하며 의료적 진단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다. ‘성주체성장애는 장애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주체성장애를 가진 자신’이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쪽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한다. “나는 ‘성정체성장애’<sup>8</sup>라는 단어를 만남으로써 구원받은 부분도 있지만, ‘성정체성장애’라는 말이 사라질 정도로, 아니 화제에 오르지 않을 만큼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는 바람이다.”(스키야마, 2007: 278)라는 대목에서 ‘성정체성장애’가 일종의

<sup>8</sup> 한국어 번역판에는 ‘성정체성장애’로 표기되어 있다(스키야마, 2007).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스기야마는 신체로 인한 성별위화감을 느끼면서도 토라이와 달리 자신의 젠더 아이덴티티와 신체형태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잘못된 몸’ 서사에 거리를 둔다. 『더블 해피니스』와 『아빠가 되다』 양쪽에 자신의 커밍아웃과 책을 쓴 계기가 된 만남이 소개된다.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던 시절 『오체불만족』으로 유명한 선천적 사지결손 장애인인 오토타케 히로타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초면에 다짜고짜 “오토타케 씨는 손발을 되찾는 수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수술을 생각할 때는 ‘남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오토타케는 사지가 있는 신체가 ‘원래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만들고 싶은지 궁금했다는 것이다. 오토타케는 이 무례한 행동에 화를 내는 대신 호기심을 느껴 스기야마와 길게 대화를 나누고, 자기 정체성을 더 본격적으로 탐구할 것을 권했다(스기야마, 2007: 288-293; 杉山文野, 2020: 18-19).

스기야마는 커밍아웃 후 반복해서 자기를 괴롭힌 질문이 “언제 수술할 거야?”라는 질문이었다고 한다. 오토타케에게 건넨 돌발적인 질문도, 이 질문의 부당도 몸을 고치면 성별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에 대한 의문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스기야마는 호르몬요법과 탐수술(상체성형)로 일상적으로는 남성으로 보이지만, 자궁적출 및 남성성기 재건수술을 받지 않는다. 자신은 신체와 상관없이 남성인데, 현재의 법제도에서 호적상의 성별 정정을 받기 위해서 건강한 몸에 메스를 대어야 한다는 사회의 기대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을 바꿀 수 없고,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일본사회에서 동성인 파트너와는 법적인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 혼인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위기를 경험하면서, ‘보통이 되고 싶은’ 스기야마는 여성 파트너와 함께 아이가 있는 가족으로 살고 싶다는 ‘가장 평범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선택을 한다. 게이 친구에게 정자를 기증받아서 파트너가 인공수정으로 출산하여 부모가 세 명인 가족이 된 것이다. 두 명의 아이를 출산한 스기야마의 가족은 스기야마의 가족은 표면적으로는 엄마, 아빠, 두 아이라는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고, 동거하지는 않지만 정자기증자인 친구와 그 부모까지 세 명의 부모와 세 쌍의 조부모가 육아에 참여

하고 있다.

일본은 입양과 관련해서는 문화적·법적인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며, 2003년 특례법 이후로, 성주체성장에 진단 및 수술을 통해 법적인 성별 정정도 가능하다. 즉 스기야마가 수술을 선택하고 ‘법적인 남성’이 되면 보다 단순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가족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더 복잡할 수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이 법적인 분류나 성형으로 남성성기를 만든 신체에 있지 않으며, 신체의 상태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인지하는 젠더정체성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뜻을 강하게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たまひよ, 2019a; 2019b; 2021). 2010년 『LGBT Book』의 대담 내용처럼, 명확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생각을 정지하는 대신, 영원히 물음을 계속하고 답을 찾는 선택을 한 것이다. 성별정정도 동성혼도 인정되지 않는 조건에서 ‘평범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인공수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 명이 다 아이와 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 정자기증자가 친부 2) 아이를 출산한 파트너가 친모 3) 아이를 입양하여 스기야마가 양모가 되는 가능성 등을 변호사와 논의하는 대목이 등장한다(174-221).<sup>9</sup>

이들의 가족은 표면적으로는 ‘보통의 가족’처럼 보이고 이성애적 정상가족을 모방하려는 불완전한 시도로 보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규정한 성별정정과 혼인의 조건을 굳이 따르지 않는 선택, 그리고 속고와 결정을 통해 ‘차이를 삭제하지 않는 상호의존과 책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원본없는 가족’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트랜스젠더 아빠와 시스젠더 엄마, 그리고 커플의 친구이자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게이와 그 부모들이 아이를 키워 나가는 가족은, 각각의 성소수자(혹은 그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넘어서서, 신체에 기반한 사회의 규범, 그리고 혈연과 결혼을 넘어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퀴어정치’를 통한 친밀성의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김순남, 2022: 123-132).

<sup>9</sup> 결과적으로 출산 후 법적인 관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 VI. 나가며

지금까지 1990년대 말에서 현재까지 일본의 젠더비순응을 정의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서 ‘성주체성장애’와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실천을 이전 시기의 젠더비순응 사례와 비교해 보았다. 과거의 비규범적인 젠더실천과 정체성이 성산업, 예능, 혹은 취미로서 일상,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된 문화적 엔클레이브에 고립된 반면, 21세기의 성주체성장애 및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실천은 자신들이 타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일상속의 존재임을 부각시키며 사회의 수용을 희망하거나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주체성장애 담론이 정신과 신체의 어긋남을 의료적 트랜지션(성적합수술)과 법적 트랜지션(호적변경)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 트랜스젠더 담론은 성별이분법적 접근과 정신=신체의 이원론으로부터도 거리를 둔다. 이들은 2010년대 등장한 다이버시티(다양성) 담론과 맞물려 자신들의 차이를 이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21세기 성주체성장애와 트랜스젠더 운동의 부상에는 과거의 연구에서 일본 성소수자가 처한 조건을 일본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으로 설명하며, 서구의 인권모델에 기반한 정치화된 성소수자 운동의 가능성에 회의를 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젠더비순응 사례를 대체한 것은 아니다. 현재 일본사회에서는 젠더크로싱의 다양한 양상이 혼재한 상태로 나타난다. 여전히 스스로를 ‘성주체성장애’ 정의하며 의료적, 법적 트랜지션의 접근성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트랜스젠더의 장애화, 의료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정체성과 추구하는 목표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다. 한편 취미나 하위문화로서 트랙을 실천하는 크로스드레서들은 굳이 자신을 ‘성적 소수자’나 ‘LGBT’와 동일시하려 하지 않는다(Yuen, 2020; Johnson, 2020). 크로스드레싱이 성소수자 범주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인지, ‘소수자’의 낙인을 피하기 위해 동일시를 거부하는 것인지는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 다양한 젠더비순응의 실천이 혼재하는 것은 통합된 트랜스젠더 권리운동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지만, 젠더의 다양한 존재방식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2023년 7월에는 경제산업성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 직원이 여성화장실 제한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고법원이 성주체성장애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5년 소를 제기한 후 7년 8개월 만의 최종 판결이었다(東京新聞, 2023b). 이를 계기로 공개된 트랜스젠더 여성의 화장실사용에 대한 여성의 인식조사에서는, 2017년 ‘저항감이 없다(31%)’, ‘어느 쪽인가 하면 저항감이 없다(33.2%)(도합 64.2%)’에서 2023년 ‘저항감이 없다(42.3%)’, ‘어느 쪽인가 하면 저항감이 없다(27.4%)(도합 69.7%)’로 저항감이 감소하고 있음이 드러난다(東京新聞, 2023a).

2023년 6월16일에는 ‘성적지향 및 젠더 아이덴티티 다양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에 관한 법률(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LGBT이해증진법)이 성립하여,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사회적 변화처럼 보이지만, 성소수자 권리운동을 해 온 당사자들이나 이들을 지원해 온 법률전문가들로부터는 ‘LGBT 이해증진이 아닌 차별증진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학자 오오노(大野, 2023)는 1) 성의 다양성을 차별의 금지의 언어가 아닌 다수자의 관용과 이해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점, 2) 법안 발의단계에서 3조 ‘섹슈얼리티를 근거로 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부당한 차별’로 정정하여 마치 ‘정당한 차별’이 있으며 용인되는 듯한 여지를 남겨둔 것, 3) 당사자들의 저항을 가장 거세게 받고 있는 항목인 12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라는 지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성소수자를 다수자(국민)에게 불안이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국민의 불안’을 이유로 성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률의 추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근의 사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법의 판결이 서서히 변해가는 한편, 아직 성소수자가 비성소수자와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까지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성소수자에 대한 각 사회의 태도의 차이를 그 사회의 종교나 문화에 기반한 전통/ 서구의 성담론이라는 이분법적 태도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일본에서 비규범 성의 실천과 정체성, 그리고 그에 대한 주류사회의 태도는 일본의 토착적 전통과,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 외부에서

수입된 담론 사이의 교섭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성되고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10년 이상 좌절되고 있으며, 특정 집단에 의한 성소수자 억압과 국가기구의 방관이 지속되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심과 혐오가 소셜미디어상에서 유통되고 선동되는 한국사회와 비교해 볼 때, 일본사회에서 성소수자 운동의 발전과 한계는 꾸준히 관찰하고 참조할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드문 현대 일본 트랜스젠더의 정체성과 실천에 대한 연구로서 본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지점이 있다. 첫째는, 한국이나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최근 트랜스젠더 배제적인 일부 페미니즘 진영의 트랜스젠더 공격이 첨예한 의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트랜스젠더운동과 페미니즘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못한 부분이다. 연구자가 당사자의 시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접하지 못하였다.<sup>10</sup> 한국 일본 및 다른 사회에서도 트랜스포비아가 주로 MtF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표현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FtM이 과다대표된 일본의 성주체성 장애와 트랜스젠더에서 노골적인 트랜스젠더 혐오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료접근성의 문제도 있겠으나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FtM/ MtF를 향한 시선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단순히 시스젠더-트랜스젠더 사이의 위계 뿐 아니라 남성-여성 사이의 위계가 트랜스포비아에 반영되는 양상을 장차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는, 자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조건에서 입수된 유명인들의 자서전이나 제한된 샘플에 의존하여, 당사자들 내부의 다양성을 고루 드러낼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취약하고 노출을 꺼리는 소수자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하는 것은 국내의 현장조사에서도 장기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 일본을 오가며 트랜스젠더 운동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 연구자 및 활동가의 경험을 참고하면, 일본이라고 해서 반드시 당사자 대면 연구가 용이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장차 장기적으로라도 현장조사 및 당

<sup>10</sup> 일본의 '젠더 비판적' 페미니즘에 대해서 Yamada(2022)의 연구가 있으나 국내에서 접근이 불가능하여 초록만 참조할 수 있었다.



사자 인터뷰를 통한 실증적인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22년 10월 17일 | 심사일: 2024년 3월 6일 |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28일

## 참고문헌

- 김성운. 2022. “점령기(1945-52) 일본 도쿄 우에노(上野)의 퀴어 지리학: 스미 다쓰야(角達也), 남창의 숲(男娼の森)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36: 235-268.
-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혈연과 결혼밖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파주: 오월의 봄.
- 김정희. 2019. “고전에 나타난 이성장(異性裝)과 젠더.” 『日語日文學研究』 110: 21-39.
- 김현미. 2019. “성소수자에 대한 인류학적 사례.” 성소수자연구회 편.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성소수자 혐오를 넘어 인권의 확장으로』, 220-226. 서울: 창비.
- \_\_\_\_\_. 2020. “남성 동성애 서사로서 <아재>의 러브(おっさんラブ)> 시리즈의 가능성과 한계.” 『횡단인문학』 6(1): 79-109.
- 마쓰시타 마나. 2023. “일본 성소수자 정책: 파트너십 제도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4(0): 95-99.
- 박한희. 2018.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비병리화 담론의 전개와 인권적 의의: 국제질병분류 제11판의 개정을 앞두고.” 『인권연구』 1(1): 153-203.
- 손인서. 2018. “트랜스젠더의 젠더정체성 구성: 커뮤니티 동학과 젠더이분법의 재생산.” 『경제와 사회』 120: 198-228.
- 니노미야 슈헤이(二宮周平). 2006. “[특집 III] 일본의 인권과 소수자 보호: 일본에 있어서의 성적 소수자의 권리옹호: 성주체성장애자(性同一性障害者)의 권리보호.” 『공익과 인권』 3(2): 153-169.
- 루인. 2012. “캠프 트랜스.” 『문화연구』 1(1): 244-278.
- 스기야마 후미노 저. 이윤혜 역. 2007. 『더블 해피니스』. 서울: 예문.
- 유연정·장진영. 2023.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일본의 ‘LGBT 이해증진법’ 제정과정 분석.” 『日本研究』 97: 199-226.
- 월킨스, 리키 저. 시우 역. 2021. 『퀴어, 젠더, 트랜스』. 서울: 오월의 봄.
- 이나경·최홍배. 2020. “일본 LGBT에 관한 노동 문제와 법 정책 과제: 후생노동성의 ‘직

- 장에 있어서 다이버시티 추진사업'과 상담내용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50: 805-843.
- 이지형. 2013. “일본 LGBT(문학) 엿보기: 그 불가능한 가능성.” 『일본비평』 8: 192-213.
- 이타니 사토코. 2020. “스포츠 분야 트랜스젠더 배제(Trans-Exclusion)에 대한 ‘페미니즘’ 담론.” 『일본비평』 23: 178-207.
- 조수미. 2016. “유희를 통한 정치적 실천과 성소수자 집단정체성의 변화: 오사카(大阪)의 한 오키나와(沖縄) 전통무용 동호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3(1): 175-215.
- 安藤大将·虎井まさ衛. 2003. “同世代対談安藤大将X虎井まさ衛, FTMTSとして同時代を生きる! 性同一性障害の社会的理解をどう深め進めていくか.” 虎井まさ衛. 『語り継ぐトランスジェンダー史: 性同一性障害の現在・過去・未来』, 168-205. 東京: 十月舎.
- いつき. 2003. “医療問題.” 米沢泉美(編) 『トランスケンダリズム宣言: 性別の自己決定権と多様な性の肯定』, 東京: 社会批評社.
- 大野友也. 2003. “LGBT理解増進法の問題点と今後の運用について.” 法学館憲法研究所 ([https://www.jicl.jp/articles/opinion\\_20230712.html](https://www.jicl.jp/articles/opinion_20230712.html)) (검색일: 2022. 8. 27.).
- 小山内美江子. 2003. “神様のちょっとした手違い.” 虎井まさ衛 『語り継ぐトランスジェンダー史: 性同一性障害の現在・過去・未来』, 154-165. 東京: 十月舎.
- 加藤政洋·三橋順子. 2015. “<性なる>場所の戦中戦後.” 井上章一·三橋順子 編. 『性欲の研究: 東京のエロ地理編』, 東京: 平凡社.
- 杉山文野. 2019a “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僕が、赤ちゃんを授かるまで.” たまひよ (2.20.). <https://st.benesse.ne.jp/ninshin/content/?id=35599> (검색일: 2022. 8. 27.).
- \_\_\_\_\_. 2019b. “トランスジェンダー、ゲイ、ママ「親3人の育児」始めました.” たまひよ (2.24.) (<https://st.benesse.ne.jp/ikuji/content/?id=35613>) (검색일: 2022. 8. 27.).
- \_\_\_\_\_. 2020. 『元女子高生、パパになる』, 東京: 文芸春秋.
- \_\_\_\_\_. 2021. “「願うことすらない未来だった」元女子高生トランスパパ、子2人、親3人、ジジババ6人とするチーム育児.” たまひよ, (3. 29.).
- 砂川秀樹. 2015. 『新宿二丁目の文化人類学: ゲイ・コミュニティから都市をまなざす』, 東京: 太郎次郎エディタス.
- 東京新聞. 2023a. “「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女性トイレ利用、抵抗感は減少傾向 金沢大など」(6.16). <https://www.tokyo-np.co.jp/article/257158> (검색일: 2023. 12. 15.).
- \_\_\_\_\_. 2023b. “トランスジェンダー職員のトイレ使用制限は「違法」と最高裁判決 原告

- 가会见で語った喜びと訴え”(7.11). <https://www.tokyo-np.co.jp/article/262330> (검색일 2023. 12. 15.).
- 虎井まさ衛. 2003. 『語り継ぐトランスジェンダー史: 性同一性障害の現在・過去・未来』. 東京: 十月舎.
- 針間克己·相馬左江子. 2004. 『性同一性障害30人のカミングアウト』. 東京: 双葉社.
- 林順一. 2017. “ダイバーシティの対応に積極的な日本企業の属性分析.” 日本経営倫理学会誌 24: 43-56.
- 東優子. 2016. “トランスジェンダー概念と脱病理化をめぐる動向.” 『こころの科学』 189.
- 三橋順子. 2003a. “日本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略史(その1)-古代~中世社会における神性.” 米沢泉美 編. 『トランスケンダリズム宣言: 性別の自己決定権と多様な性の肯定』. 東京: 社会批評社.
- \_\_\_\_\_. 2003b. “日本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略史(その2): 戦後の新展開.” 米沢泉美 編. 『トランスケンダリズム宣言: 性別の自己決定権と多様な性の肯定』. 東京: 社会批評社.
- 米沢泉美. 2003. “メディアとトランスジェンダー.” 米沢泉美 編. 『トランスケンダリズム宣言: 性別の自己決定権と多様な性の肯定』. 東京: 社会批評社.
- 米沢泉美 編. 2003. 『トランスケンダリズム宣言: 性別の自己決定権と多様な性の肯定』. 東京: 社会批評社.
- Chapman, D. 2020. “Gender and the Koseki.” Jennifer Coates, Lucy Fraser, and Mark Pendleton,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Gender and Japanese Culture*, 83-91. London: Routledge.
- Dale, S. P. F. 2020. “Transgenders, Non-Binary Genders, and Intersex in Japan.” Jennifer Coates, Lucy Fraser, and Mark Pendleton,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Gender and Japanese Culture*, 60-68. London: Routledge.
- Ember, Carol, Milagro Escobar, Noah Rossen, and Abbe McCarter. 2019. “Gender.” <https://hrf.yale.edu/ehc/summaries/gender> (검색일: 2022. 10. 14.).
- Engdahl, Ulrica. 2014. “Wrong Body.” *TSQ: Transgender Studies Quarterly* 1(1): 267-269
- Ho, Michelle. 2021. “A Different Kind of Transgender Celebrity: From Entertainment Narrative to the “Wrong Body” Discourse in Japanese Media Culture.” *Television & New Media* 0(0): 803-821.
- Johnson, Adrienne. 2020. “Josō or “gender free”? Playfully Queer “lives” in Visual

- Kei.” *Asian Anthropology* 19(2): 119-142.
- Frühstück, S. 2000. “Managing the Truth of Sex in Imperial Japa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 332-358.
- Ishida, H., M. McLelland, and T. Murakami. 2005. “The Origins of ‘Queer Studies’ in Postwar Japan.” Mark McLelland and Romit Dasgupta, eds. *Genders, Transgressors and Sexualities in Japan*, 33-48. London: Routledge.
- McLelland, Mark. 2005. *Queer Japan from the Pacific War to the Internet Age*.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 \_\_\_\_\_. 2023. “Is There a Japanese ‘Gay Identity?’” *Culture, Health & Sexuality* 2(4): 459-472.
- Moschella, M. 2021. “Trapped in the Wrong Body? Transgender Identity Claims, Body-Self Dualism, and the False Promise of Gender Reassignment Therapy.” *The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A Forum for Bioethics and Philosophy of Medicine*. 46(6): 782-804.
- Lunsing, W. 2003. “What Masculinity?: Transgender Practices among Japanese ‘men’.” James E. Roberson and Nobue Suzuki, eds. *Men and Masculinities in Contemporary Japan: Dislocating the Salaryman Doxa*, 20-36. London: Routledge.
- \_\_\_\_\_. 2005. “The Politics of Okama and Onabe: Uses and Abuses of Terminology Regarding Homosexuality and Transgender.” Mark McLelland and Romit Dasgupta, eds. *Genders, Transgressors and Sexualities in Japan*, 81-95. London: Routledge.
- Pflugfelder, G. 1999. *Cartographies of Desire: Male-male Sexuality in Japanese Discourse, 1600-195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bertson, J. 1991. “The Shingaku Woman: Straight from the Heart.” Gail Lee Bernstein, ed. *Recreating Japanese Women, 1600-1945*, 88-107.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98. *Takarazuka: Sexual Politics and Popular Culture in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Yamada, Hidenobu. 2022. “GID as an Acceptable Minority; or, The Alliance between Moral Conservatives and ‘Gender Critical’ Feminists in Japan.” *Transgender Studies Quarterly* 9(3): 501-506.

- Yuen, S. M. 2020. “Unqueer Queers—drinking Parties and Negotiations of Cultural Citizenship by Female-to-male Trans People in Japan.” *Asian Anthropology* 19(2): 86-101.
- Win, Kyawt Kyawt and Satomi Kato. 2021. “Characteristics of Diversity Management in the 268 Companies Listed in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s ‘100 Best Companies for Diversity Management’ and ‘New 100 Best Companies for Diversity Management’.” *Journal of Japan Management Diagnosis Association* 21: 38-44.

### 〈1차 자료〉

- 「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リアル」製作委員会(2021). “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リアル”(온라인 웹진). <https://tgbooklet.wordpress.com/>(검색일: 2022. 10. 1.).
- NHK 2010. 『NHK ハートをつなごう LGBT Book』. 東京: 太田出版.
2021. ““ジェンダーレス制服”導入広がる 学校の「男女分け」に苦しむ生徒も.” NHK(11. 19.)(<https://www.nhk.or.jp/shutoken/wr/20211119gg.html>(검색일: 2022. 8. 17.).
- \_\_\_\_\_. 2018. 『FtM Magazine LapH』 14.
- \_\_\_\_\_. 2021. 『FtM Magazine LapH』 16.
-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3. “Transgender Exclusion in Sports.” (<https://www.apa.org/topics/lgbtq/transgender-exclusion-sports> (검색일: 2024. 3. 17. ).
- UN Free & Equal (2023). Definitions. <https://www.unfe.org/definitions/> (검색일: 2023. 11. 15.).
- UPI. 2019. “Human Rights Watch: Japan’s Transgender Sterilization Law Is ‘Regressive’.” UPI Top World News, 20 Mar. 2019. Gale General OneFile, [link.gale.com/apps/doc/A579334488/ITOF?u=temple\\_main&sid=bookmark-ITOF&xid=38a8da55](http://link.gale.com/apps/doc/A579334488/ITOF?u=temple_main&sid=bookmark-ITOF&xid=38a8da55) (검색일: 2022. 8. 1.).

## Abstract

## Gender Nonconforming Practices and Identities in Japanese History and the Emergence of New Transgender Identities in the 21st Century

Sumi Cho Myongji University, Bangmok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This study compares new transgender identities and practices that emerged in 21st century Japan with gender-nonconforming practices in Japanese history. From ancient times to the Edo period, non-normative sexualities and gender nonconforming practices tended to be condoned if they did not challenge the feudal or gender hierarchy but instead remained in cultural enclaves separated from everyday life and deemed morally inferior. Gender nonconforming practices and representations from the postwar to the 1990s were most prominent in the entertainment and sex industries. They wer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Japan's gender-crossing tradition and the West-imported discourse of 'sexual perversion.' Male-to-female gender crossing was overrepresented in effeminate and flamboyant 'gay boys', 'okama', 'new half' celebrities and crossdressing hobbyists. Non-normative sexual orientations and gender identities were often conflated in them and were considered to exist in a separate sphere from everyday life. The discourse of gender identity disorder (GID) emerged in the late 1990s, which emphasized the separation of gender identity from sexual orientation. The view of gender dysphoria as a "disorder or illness" has helped transgender people to be accepted as a part of everyday life and has helped them to actively dem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medical transition and legal gender correction as an "acceptable minority."

However, GID has also been criticized as another form of confinement by pathologizing transgender people and reducing them to their bodies. The new transgender paradigm in the mid-2000s was inspired by the global LGBT movement, the WHO's depathologization of transgender people, and the new discourse of "diversity management" in various industries. Transgender as the "T of LGBT" tends to focus on issues of identity and express themselves in human rights movements and subcultures while distancing itself from the body-centered discourse and gender binary of the discourse. Under the new trend, transgender people demand full acceptance from society as equal members of society and a change in the legal and medical prerequisites for legal gender change and equal marriage.

**Keywords** | Japan, Gender Nonconformity, Gender Identity Disorder (GID), Transgender

